

남서울 목장 모임 (4월 16일)

Worship 찬양과 경배

찬송 9장 /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Words 말씀

본문 민수기 16:16-35 / 불의를 떠나는 믿음

오늘날 공동체 질서가 약화되고 권위를 부정하는 경향이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에는 고라가 그 선봉에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선동하여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가 표면적으로 내건 기치는 '평등'이었으나, 사실 그는 제사장이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라 일당의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일당을 심판하심으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지키셨습니다.

[1] 고라가 온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자, 하나님은 회중을 멸하려 하십니다(16-22절).

1 모세가 고라 일당에게 지시한 일은 무엇입니까(16, 17절)?

2 고라와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십니까(19-21절)?

3 모세와 아론은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엇이라고 말하니까(22절)?

<나눔1> 위압적인 태도로 군림하려는 권위주의는 지양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해 세우신 사람의 정당한 권위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정당한 권위가 인정받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지, 이를 바로잡으려면 어떤 노력과 조치가 필요한지 서로 생각을 나눠봅시다.

<나눔2> 모세와 아론은 자기 명예보다 백성의 안위를 염려하여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과 불의한 세상 사이에 선 제사장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

[2] 하나님은 고라 일당을 심판하심으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지켜주십니다(23-35절).

1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으로 가서 회중에게 지시한 일은 무엇입니까(23-27절)?

2 끝까지 고라 편에 선 자들은 어떤 최후를 맞이합니까(28-35절)?

<나눔3> 악한 길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을 때, 악한 자들의 모의에서 빠져나올 기회가 있을 때, 지체 말고 뛰쳐나와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히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악한 길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

Work & Witness 사역나눔

1. 사랑의 물품바자회(부제 : 함께 GREEN 바자회)

4월 28일(금) 연합예배 후 바자회가 진행됩니다.

- 시간: 오전 11시 / 장소: 본당(예배), A실 및 파랑새공원(바자회)

이번 바자회는 GREEN 바자회로 진행됩니다. 바자회 당일 텀블러 및 장바구니를 지참해주세요.

풍성한 섬김과 나눔이 되도록 교구와 목장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